

2017년 보건복지 이슈 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연구 -출장보고서-

2017. 12.

□ 출장목적

- OECD 37차 사회정책워킹파티 및 22차 보건위원회 참석

□ 과제명

- 2017년 OECD 보건복지 이슈분석 및 대응 전략 수립 연구

□ 출장기간

- 2017.12.10.~2017.12.17

□ 출장지역

- 프랑스 파리 OECD

□ 출장자

- 강희정 연구위원, 박금령 전문연구원

□ 일정요약

출장일	국가	방문기관	면담자	주요 논의사항, 습득사항
1일차	2017.12.10	프랑스	국가 간 이동	• 인천→프랑스
2일차	2017.12.11	프랑스	OECD	• 보건위원회 참석 1일차
3일차	2017.12.12	프랑스	OECD	• 보건위원회 참석 2일차 • 보건위원회 정리 및 사회정책워킹 파티 안건 사전 검토
4일차	2017.12.13	프랑스	OECD	• 사회정책 장관회의 선언문 대응 및 사회정책워킹 파티 안건 검토
5일차	2017.12.14	프랑스	OECD	• 사회정책워킹파티 참석 1일차
6일차	2017.12.15	프랑스	OECD	• 사회정책워킹파티 참석 2일차
7일차 8일차	2017.12.16 2017.12.17	프랑스 한국	국가 간 이동	• 프랑스→인천

가. 22차 보건위원회 주요 안건

□ 주요 안건

- 사무국 업무 보고
- EU집행위 보건식품안전총국(DG SANTE)과 OECD 협력 경과
- 2019-2020 사업 및 예산 사전 논의
- 치매 보고서: 주요 결과 및 권고
 - － 치매 관리를 위한 주요 요소와 부문 검토: 치매 진단,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기 원하는 치매환자 지원,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 치료 향상
 - － 국가별 치매 관리 방안 검토: 현재 각 국가들에서 시행되고 있는 주요 정책을 확인하고 그 방법에 대해 비교하고 효과적인 방안을 검토, 궁극적으로 이 정책들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혁신적 치료에 대한 지속가능한 접근 - 보고서 검토
 - － 제약 시장의 현재 트렌드와 정책입안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과제
 - － OECD 회원국들의 경제와 신약 개발을 위한 산업의 역할
 - － 정책대안들의 범위 모색과 각 대안들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조건들에 대한 논의: 본 보고서에서 검토된 정책대안들은 모든 정부에 적용될 수 있는 권고사항이나 최선의 해결책 이라기보다는, 세 가지 목표-접근성의 개선, 지출 효율화, 혁신의 촉진-를 달성하기 위해 개별 국가들의 특별한 정책적 환경과 선호에 따라 고려해 볼 수 있는 활동들을 의미함.
- 사람중심 보건의료를 위한 헬스 리터러시(health literacy)에 대한 긴급현안 보고서: OECD 국가 현황
 - － 초기 분석에 대한 의견과 건강 독해력 향상을 위한 정책과 개입관련 추가 분석 제안
 - － 서면의견, 교정, 유용한 추가 사례들을 2018년 1월 말까지 제출
 - － 종결 전에 수정 보고서가 서면으로 회람 예정

- 보건의료인력 기술 평가에 대한 타당성 연구: 사람중심의료달성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지원
 - “보건의료인력의 기술 측정”에 대한 문제를 주로 논의
 - 조사를 통해 기술현황과 기술 격차 진단
 -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조치 검토
 - 보건의료 인력의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핵심 요소를 아우르는 프레임워크를 개발
- 사람중심 보건의료시스템 프레임워크
 - 사람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를 위한 장관급 조치 이행 검토
 - 사람 중심 프레임워크의 핵심요소, 정책, 가치 검토
 - 사람 중심 보건의료체계 프레임워크 구성 요소 검토
 - 향후 계획과 업무
- PaRIS(환자보고지표체계): 진행 보고 및 향후 계획
 - Work stream 1: 특정 질환에 대한 환자보고지표의 표준과 도입이 암 및 고관절 수술, 정신건강 부문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고 있음.
 - Work stream 2: 만성질환자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국제적 환자 서베이의 개발이 2단계의 조사 설계에 걸쳐 이루어질 것임.
 - Governance: work stream 2에 따라 만성질환자에 대한 시범조사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국가들은 관련 부서(bureau)를 신설하는 것이 제안됨. 이는 PaRIS의 개발과 도입을 촉진하며, 핵심 파트너 기관들과 자원 조달, 다른 국가로의 확대와 같은 기술적 업무들을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장관회의 후속 정신건강사업에 대한 수정 제안
 - 정신건강 정책의 필요성과 중요성
 - OECD 정신건강 성과 측정 틀(Framework)의 개발 단계 및 핵심 정책원리
 - OECD 정신건강 성과 측정 영역별 지표 선정 및 수집 방안
- 데이터 거버넌스 권고 이행을 위한 실행 지침 및 모니터링 계획(안)
 - HC는 CDEP, HCQI, SPDE와 협력하여 OECD 회원국 및 비회원국 모두 권고를 이행하도록 지원하는 툴킷(toolkit)을 개발하고 권고 채택 이후 5년 내(2021

년) 이사회 보고 계획 수립

- 2021년 말/2022년 초까지 권고 이행 모니터링 결과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HCQI와 SPDE의 대표는 2017년 5월 16일에 회의를 개최하여 권고의 실행 지침에 포함될 핵심 요소와 모니터링 계획에 포함될 일련의 활동들을 토의
- HC와 CDEP는 봄 회의에서 HCQI와 SPDE가 실행 지침 및 툴킷 초안을 준비하도록 합의

○ 일차의료의 미래: 중간 보고 및 향후 계획

- 일차의료 강화는 OECD 보건의료체계에서의 우선 순위 중 하나로, 고령화, 만성질환의 부담, 보건의료비 증가, 건강불평등 완화 등 여러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효과적 방법으로 간주되어 왔음.
- 하지만, 일차의료만으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고 지역 혹은 국가 수준의 맥락을 고려하여 접근해야 하며, 이해 관계자 간의 의견 충돌, (일차의료 강화에 따른) 일차의료 인력의 저항 등 여러 문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함.
- 국가별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유형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일차의료로 통한 서비스 접근성, 지속성, 통합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임.
- 대표적 예로 일차의료는 지역사회에서 통합적 케어를 조직하거나,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일차의료 의사를 위한 전문 수련 과정도 만들어지고 있음. OECD 현재 보건의료 지출에서 약 12%가 일차의료에 지출됨.

○ Fast-Track Paper: 2018년 12월 발표 보고서 주제 선택

- A. 건강과 지구: 지구의 건강에 기여하기 위한 OECD 보건시스템의 역할
- B. 시민 건강 증진과 보호를 위한 지역사회의 역할
- C. 국가 간 병원의 성과 비교
- D. 디지털 진료의 추세와 서비스, 기회와 정책 대응
- E.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보건의료시스템과 새로운 기술들과의 관계의 모색
- F. 예방: 인구집단 건강수준에의 장기적 효과와 계층별 보건의료 지출의 변화
- G. 일차의료에서 다학제적 접근: 의료 분야 외 전문가의 역할

2018년 의장단 선출

나. 37차 사회정책 워킹파티 주요 안건

□ (사무국 요청사항) 각 부처 담당자들이 국가별 사회정책 장관의 관심 사항과 plenary session 발표 여부 확인 요청, 아젠다와 이슈브리프 의견 제출 요청(18년 1월 2일까지). 사회적 위험 인식에 대한 국제 비교조사 참여 의사 확인

□ 국가별 의견

- (캐나다) 사회 변화에 따른 긴장과 불평등 속에서 포용적 정책이 요구되며 이 점에서 사회정책장관회의에서 관련 아젠다를 살펴보고 실제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탐색할 수 있음.
- (일본) 선언문에서 비정형 근로자, 플랫폼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보다 명확히 제기되기 바람. 사회적 보호의 범위를 정확히 정의해주기 바람. 조사 일정이 촉박에서 참여가 어려울 것임.
- (미국) 장관급 선언 관련 의견 서면 제출 예정(현재 작성 중). 강조해야 할 부분은 문단 7번째(정부 신뢰 부분)이며, 조사 참여는 서면 답변하겠음.
- (스페인) 장관선언에서 LGBT 내용 환영하며, 핵심 메시지를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가 중요한데, 사회적 서비스와 고용 간의 조정(Coordination)을 더 드러내기를 희망함.
- (칠레) (세션 4)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SDG)에서 개발은 크게 사회/경제/환경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있는데, 논의 사항에 환경이 빠져 있음. 장관참석 여부와 관련하여 칠레는 사회개발부, 노동부 장관이 별도로 있어 모두 참석 가능한지 궁금함. 현재는 확정하기 어려움.
- (포르투갈) 조사 참여에 의향이 있으나 재정 기여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음. 조사 문항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단순화해야 함.
- (노르웨이) 서면 의견 제출 예정. 노르웨이 노동부 장관이 관심을 가질 것이며, 구체적 내용을 통해 참여 확인 가능
- (그리스) 미래 지향적 주제로 관심은 있으나 재정적 지원은 어려움. 조사를 통해 정확히 무엇을 얻을 수 있는 지 궁금함.
- (스웨덴) 조사에서 소수 집단/취약집단을 어떻게 포함할지 궁금함.
- (한국) 번역된 조사표를 사용하는 국가에게 조사 일정이 촉박하며, 한국은 일정

의 촉박함으로 참여가 어려울 수 있음. 사회정책포럼과 장관회의 이슈 브리프 관련 불평등한 고령화 방지 세션에 참여를 희망함.

- (호주) 조사 내용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많으나, 참여 확정 어려움.
- (터키) 사회적 보호(social protection)의 정의를 명확히 해주기 바람. 정부 부처가 사회보장(사회보험, 연금, 산재), 가족과 사회정책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두 장관의 참여가 가능한지 궁금함.
- (영국) 조사를 지지하지만, 조사 참여와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1월 초까지 결정에서 알려주겠음.
- (헝가리) 비정형 근로자 등 다른 집단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주민과 LGBT 보호, 젠더 관련 이슈에 관심이 많음.
- (독일) 전체적 내용 구성에 동의하나 현재는 확정하기 어려움.
- (폴란드) 새로이 수정된 문서를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함.

□ (사무국) 2018년 1월 15일까지 서면 의견 제출을 요청

- (사회적 보호의 개념 정의) 사회적 보호에 대한 개념은 지금도 진화 중. 재정지원과 서비스 모두를 포함하는 포괄적 개념임.
- (플랫폼 경제의 근로자 관련) 새로운 고용형태이자 현상이며 그 규모 역시 증가하고 있음. 그들의 보장을 위해 어떤 진전이 있어야 하는지를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선언문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국가마다 다른 입장이기 때문에 관통하는 내용 수준에서 포함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 바람.
- 새로운 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 상황이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보편적 소득이 제안되어 왔음. 덴마크의 플랫폼 이코노미 사례는 좋은 정책 모범이 되고 있음. 방안의 타당성이 모든 국가 간에 공유되지 않았으나 사회정책 분야에서 논의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임.
- (조사 관련) 국가 간/ 국가 내 집단 비교를 위해 도움이 될 것임. 어느 취약집단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 확정된 바 없음. 국가 부처가 별도로 해야 할 일은 없을 것임. 조사의 세부 내용을 다음 주에 회람 예정이고 핵심 결과를 사회정책 포럼에서 발표 예정임. 12개 문항의 짧은 조사이며, 인터넷 방식으로 시행 예정이고 이미 국가 샘플을 가지고 있으며 데이터 보호는 보장될 것임.